

청년 전남 정착 10곳에 3억원씩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을 사업비 30억...17일까지 공모
체협 프로그램·창업·일자리 제공

전남도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를 추가 공모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중심의 사업 추진 자율권과 주도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은 거주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 등 공평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0개소에는 2년 동안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청년의 활동공간 조성'과 '지역살이 체협' 등 청년체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제공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또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1대1 매칭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사업 진행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로 순천 2개소, 곡성·영광·완도 각 1개소 등 총 5개소를 선정, 현재 순조롭게 조성 중이다. 순천 장천동 '천천하마을'은 환경과 연계한 청년커뮤니티, 청년잡지 제작,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순천 조곡동 '브롬브롬마을'은 지역을 알아가는 순천 두 달 살기, 수제맥주 제조 교육 등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 겸면 '두꺼비마을'은 청년이 빈집을 직접 수리해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봉사단, 마을 관리사 등 마을 주민과 상생하는 프로

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광 군서면 '안터마을'은 치유농업과 연계해 국화, 구절초, 양귀비 등 야생약초를 재배, 로컬푸드 상품 개발 및 주민과의 치유문화축제를 추진 중이다. 완도읍 '용암마을'은 빈집 중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청년이 머무는 주거 공간 확보와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주민과 상생모형을 발굴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년이 머무는 전남을 위해 순천과 무안에 '청년문화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군 200개 팀을 선정해 전남지역 청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풍성

7개 공공도서관 협업 통해 취약계층 독서복지 강화

전남도립도서관이 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7개, 성인 대상 5개, 취약계층 8개 등 모두 20개 과정의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올해는 '찾아가는 북소리 도서관'과 함께 취약계층 독서복지 강화를 위해 영광군립도서관을 포함한 도내 7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취약계층 독서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엔 유아 그림책 놀이터, 초등 독서 클럽, 어린이책 작가와의 만남, 미술로 만나는 그림책 놀이, 그림책으로 만나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등 5개 강좌를 선보인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진로 특강을 4월과 6월 개최한다.

성인 대상으로는 퇴근길 독서 클럽, 영화로 읽는 문학, 지혜의 숲 도민 강좌, 부모교육 전문가 등 5명을 초청하는 나와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문화와 함께하는 하루수업 등 5개 과정을 운영한다.

'지혜의 숲 도민강좌'는 오는 9일부터 진행한다. 2023 전남도 올해의 책 문학 분야 선정 도서인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가 첫 강연자로 나선다. 이날 행사를 포함해 광양, 나주로 찾아가는 도민강좌 등 총 10회 실시할 방침이다.

박용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책과 함께 따뜻한 봄을 시작하듯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불필요한 규제 개혁 도민 불편 해소한다

전남도, 업무담당자 워크숍

전남도가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 규제 신설 억제 등을 통해 도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날 워크숍에는 시·군 규제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중앙정부 규제혁신 움직임에 대응하고 지역 현장의 덩어리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전남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며 업무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규제혁신 과제와 전략", 전영하 계명대학교수는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지방규제개혁 필요성과 지자체 규제개혁 활동의 주체로서 역할과 자세를 강조했다.



김봉근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 개선 제감도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 중앙규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 강화를 통한 규제사냥단 활동을 통해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도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기업체의 규제업무 부담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규제사냥단' 운영 등 규제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713억원 지원

3만6천 가구 임차료·주택개보수

전남도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 3만6000여 가구에 주거급여 사업비 713억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 가구원 수, 주거 유형(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 유형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

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4인 기준 253만8000원)인 가구다.

주택 임차료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6만4000원, 2인 가구 18만5000원, 3인 가구 22만원, 4인 가구 25만6000원까지 지원된다. 주택 개보수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강·중·대보수로 구분되며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이 지원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를 상시 발굴 지원하는 등 주거 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국비 확보

고흥 연흥도·강진 서중마을 체험·휴양시설 기반 개선

해양수산부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고흥 금산 연흥도와 강진 마량 서중마을 어촌계가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2023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전남 2곳을 포함해 전국 4개소를 확정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체험마을을 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가족형 체험·휴양시설 기반을 개선하고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연흥도와 서중마을은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 각각 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연흥도는 기존 큐브펜션을 새단장하고 해안길

바다정원, 바다별 해양캠프와 캐릭터 상품을 제작한다. 서중마을은 관광복합건물과 종합안내소를 신축하고, 해양펜션을 새단장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도화사업을 통해 기존 펜션을 새단장하고 추가 기반시설을 마련, 체험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며 "전남에 운영 중인 33개소 어촌체험마을의 시설 개선이 속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도, 양성평등 실현 49개 과제에 1162억원 투입

여성 경력 이음 바우처 등 추진

전남도가 올해 한 해 경력단절 여성 경력 이음 바우처 등 양성평등 정책 49개 과제에 116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 평등한 전남 실현에 적극 나선다.

전남도는 문금주 행정부지사과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윤은중(사)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전남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2022년 양성평등 기금 결산

▲2023년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기초해 49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경력단절 여성 경력 이음 바우처, 경력재출입 지원, 가족친화 인증 확대 등이다. 양성평등 기금 결산 심의는 지난해 1년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된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 이뤄졌다.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난 1월 27일까지 공모해 접수한 28개 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기금 사용 목적, 지원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해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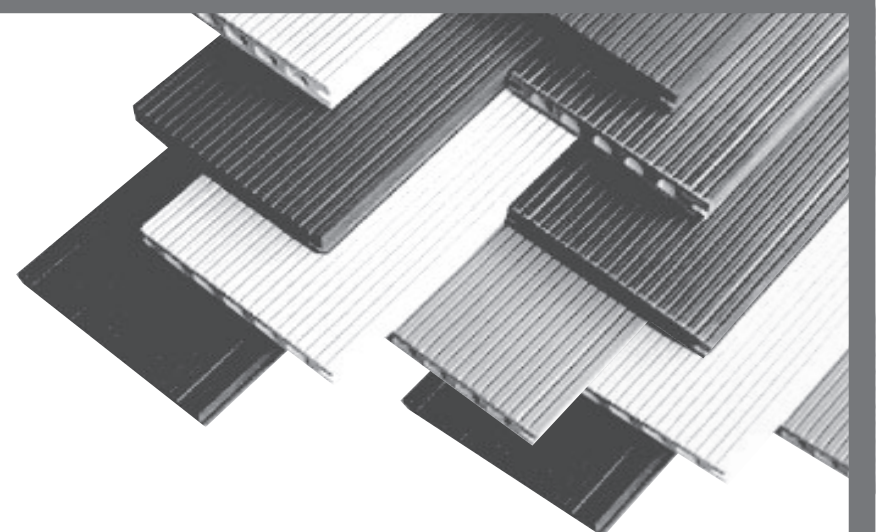
문금주 부지사는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취업준비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성기금 사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한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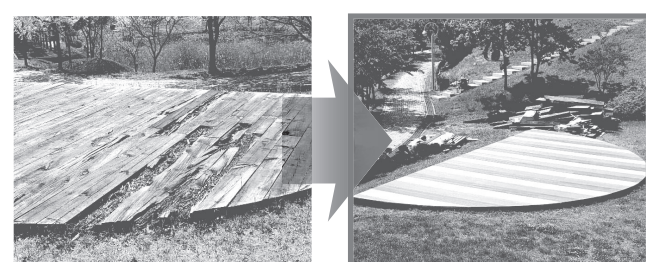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